



## 행복한 멘토



이재훈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교목)

지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연아 선수의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우승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시간에 김연아 선수의 경기 장면을 보면서 진한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되던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김연아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TV방송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스타의 뒤편길을 준비해서 방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스토리로 엮어 들려줍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순간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 김연아 선수의 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할 때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부모일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 부모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녀를 그 자리에 서기까지 가르쳐온 코치들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낳은 자녀가 이런 영광을 얻은 것을 보는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은 기쁨이 가르친 제자가 얻은 영광을 보는 기쁨일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런 영광을 얻기까지 수고한 코치들을 인터넷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피겨선수가 꿈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잔소리 섞인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혜숙 코치가 김연아의 기본기를 잡아주었고, 그 이후 김세열 코치가 테크닉과 예술성을 다듬어 갔습니다. 이때부터 김연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겨선수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라면 누구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날 겁니다. 그런데 김세열 코치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르쳤다고 하면서 더 나은 코치를 소개해 줍니다. 그가 바로 현 코치인 브라이언 오서와 데이빗 윌슨입니다. 오서 코치는 캐나다 사람들에게 피겨 계에 영웅입니다. 미스터 트리플 악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점프에 탁월한 동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김연아의 그 애간장을 녹게 하는 예술적 표현력과 춤사위는 윌슨 코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서 코치가 몇 년 전 김연아와 함께 한 자리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예뻐니다. “나는 연아가 행복한 스케이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하도록 연료를 때는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멘토를 얻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멘토가 되어 살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더욱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삶은 분명 행복한 삶임에 분명할 겁니다. 지금 우리 때문에 누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만드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욱 돋보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람!